

동국대학교일산병원 NewsLetter

함께 나누는 행복한 이야기

01 동국대학교의료원, '아름다운 동행'에 네팔구호기금 3,000만원 전달

동국대학교의료원(의료원장 태석기)은 7월 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을 찾아 공익법인 아름다운 동행(이사장 자승 스님, 조계종 총무원장)에 네팔 구호기금 3,000만 원을 전달했다. 동국대학교의료원 산하 직원들은 부처님이 태어나신 네팔에 강진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알고 지진이 일어난 4월 25일 직후 피해를 돕기 위해 높은 관심 속에 모금활동을 개시했다. 교·직원의 적극적 참여 속에 일산병원 17,490,000원, 경주병원 10,000,000원, 분당한방병원 1,000,000원, 의학계열 대학교직원이 1,510,000원을 동참하여 총 3,000만 원의 기금을 모았다. 특히, 6월 전 국민을 불안으로 떨게 한 메르스 여파로 더디게 진행되었지만, 메르스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교직원들의 모든 역량을 발휘한 가운데 모금 활동이 이루어져 그 의미가 더 컸다.

전달식에서 태석기 의료원장은 “네팔에 지진이 일어난 지 거의 70일이 지났지만 아직 많은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안다. 주민들 건강과 청결한 위생에 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된 기금은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강진으로 폐허가 된 네팔 재해지역의 복구와 2차 재난을 예방하는 등 중장기적 구호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02 “의사, 간호사 선생님 무서운 메르스랑 싸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큰솔유치원생, 메르스 응원메시지 보내와

큰솔유치원은 7월 3일 메르스와 싸우는 동국대학교병원 의료진을 응원하기 위해 원생들이 직접 그리고 쓴 엽서를 전달했다. 고사리 손으로 그림을 그리고 정성들여 쓴 편지는 지하 1층에 게시하여 내원객과 직원들이 함께 공유하고 있다, 식사를 마치고 편지를 유심히 보던 직원은 “그동안 병원에 근무한다는 이유로 주위의 따가운 눈총을 받았던 기억과 메르스 퇴치를 위해 밤낮없이 뛰어 다녔던 힘들었던 순간들이 이 편지로 모두 잊혀지고 더 큰 에너지를 받았다.”말했다.

큰솔유치원 정소희 선생님은 “한 달 동안 많은 노력을 해주셔서 유치원 친구들이 건강하고 활기차게 보내고 있다.”며, “열악한 환경에서도 잘 싸워주신 여러분을 마음속 영웅으로 기억할 것이다.”고 전했다.



03 아름다운 꽃을 보며 더위를 이겨요

동국대학교병원은 아름다운 꽃을 보며 무더위를 이길 수 있도록 정·후문 화단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는 여름정원을 7일 완성했다.

시설관리팀은 지난 봄 ‘봄 품은 정원’을 꾸민데 이어 이번에는 화려한 색을 자랑하는 이태리 봉숭아 등 7종, 약 1,000송이를 심어 지나가는 이들의 더위를 식혀주고 있다.

동국대학교병원은 앞으로도 병원과 자연이 어우러지고 치유와 휴식이 함께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Q&A 무엇이든 물어 보세요

Q 5인실에 입원해 있는데, 수술을 받고 하루 동안 중환자실에 가야합니다. 다시 일반병실로 나올 때 지금 쓰고 있는 5인실을 그대로 사용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A 국민건강보험법 및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해 이중병실 사용시 병실료 본인부담이 가능합니다.

환자가 집중치료를 위하여 중환자실로 전실 된 경우에는 종전에 사용하던 입원실을 다른 환자 입원을 위하여 비워 주어야 함이 원칙이나, 환자상태의 호전을 대비한 기준 병실(4~6인실)의 확보 또는 보호자 대기사용 등의 목적으로 그 비용을 별도 부담함을 요양기관 측에 요청하여 병실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는 그 환자 가족이 그 병실을 계속 사용함에 따라 요양기관 측에 다른 환자를 입원시키지 못한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을 본임이 부담합니다.